

## 1990年代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의 分析<sup>+</sup>

廉 惠 晶

全北大學校 生活科學大學 衣類學專攻 助教授

##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imaged by Kimono in the 1990s<sup>+</sup>

Hae Jung Yum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r analyzing the fashion design imaged by Kimono in the 1990s. Through the work, what is the way to create the non-western fashion design can be found. For this purpose, I took my design data from fashion magazines in the 1990s, and referred to the literal materials about history of western costume and Kimono.

The result were as follows ;

Kimono in Japanese denotes thing to wear. Ki is derived from the verb kiru, to wear, and mono, thing. However, in the western world the term came to mean the T-shaped outer garment formerly known in Japan as the kosode. It is consists of sleeve(sode), wide sash(obi), hemline(suso), collar(eri), and material. There were many complex reasons for its diversity in the west, and for its evolution during the past one hundred years from the peignoir including exoticism, eroticism, women's liberation to the high fashion imaged by folklore and avant-garde. Therefore the fashion design imaged by Kimono was divided into feminine style, natural & folklore style, modern & avant-garde style.

### I. 서론

지난 1996년 7월 일본에서는 'Japonism in Fashion'이란 전시회가 열려 서양복식에 미친 일본 전통 복식의 영향을 재조명하고 21세기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전통 복식으로서의 기모노가 아니라 현대 복식의 변화를 이끌어왔고 미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복식으로서의 기모노라는 관점이 추가된 것이었다. 이 전시회는 당시 패션계뿐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켜 이를 계기로 하여 기모노의 국제화와 미래화를 도모하는 기모노와 현대 복식과의 접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기모노는 일본의 대표적인 민족 복식으로 19세기 말 유럽에 일본취미(Japonaiserie)가 시작된 이래 서양 복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왔다. 그리고 현대 패션에 있어서는 다카다 겐조(Takada Kenzo)와 같은 일본인 디자이너들이 국제적인 패션 무대에 데뷔하기 시작면서 기모노로부터 이미지를 얻은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 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sup>+</sup> 본 연구는 199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일본인 디자이너들 외에도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등과 같은 세계적인 정상의 디자이너들이 기모노를 이미지로 한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전통복식은 한 민족의 정서를 내포하는 상징물인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으므로 패션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이미지 발상을 위한 대상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따라서 최근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 디자인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모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일본의 패션이나 디자이너의 연구에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sup>3)</sup>.

본 연구는 기모노를 연구 소재로 하여 우선 그 전통적 개념과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고 서양복식사 내에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하고자 하며,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비서구적 개념의 복식을 디자인하기 위한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환기시키는 동시에 보다 국제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는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연구의 의의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국내외 문헌 및 연구 논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모노의 개념 및 특성과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으며,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의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해 90년부터 99년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여 패션 잡지, 인터넷 등의 시각 자료 중에서 대상 디자인을 선별 분석하였다.

## II. 기모노에 관한 일반적 고찰

### 1. 기모노의 역사 및 개념

기모노란 입을다는 의미하는 '기루(着る)'와 물건을 의미하는 '모노(物)'가 합성되어 생긴 말이다. 즉 인간이 몸에 걸쳐 입는 것은 모두 기모노인 셈이다. 그러

나 일본인들은 서양의 의복과 비교하여 일본의 옷 즉 와후쿠(和服)를 일괄하여 기모노라 부르며, 서양의 옷인 양복과 구별을 한다.

그 중에서 협의의 기모노는 앞에서 여미고 오비(帯)로 묶어 입는 원피스형 의복으로 양복과 같이 단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의 곡선을 무시한 직선 재단의 의복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는 나라시대(奈良時代; 562-793)부터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91) 말기까지 남녀의 속옷으로 사용된 고소데(小袖)가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 1192-1333)에 이르러 예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지(袴, 하카마)와 치마(裳, 모)가 생략되어 겹옷으로 사용되면서 현재의 기모노로 변화하였다<sup>2)</sup>. 그 후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고소데와 오비의 차림을 하게 되었고 염직, 자수, 가공방법의 면에서도 다채롭게 되어 고소데 황금시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초닌(町人)<sup>3)</sup>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그들이 입는 고소데에 표현된 독특한 미의식은 현재 기모노의 근간을 이루었다<sup>4)</sup>. 그리고 현재 기모노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자 상징으로, 그 스타일과 재료에 따라 성(gender), 지위, 미학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를 나타낸다<sup>5)</sup>.

이에 비해 흔히 서양에서 말하는 기모노(Kimono)란 19세기 말 일본취미가 유행되면서 당시의 복식에 유입,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서구적 해석을 밑바탕으로 하여 그 의미 또한 다양하다. 우선 앞으로 여미고 여유있는 실내용 가운(peignoir)<sup>6)</sup>을 가리키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소매의 슬기선이 없이 몸판에서 계속 이어진 직선형의 슬리브를 가리켜 '기모노 슬리브'라 부르는 것 같이 '기모노 칼라<sup>7)</sup>', '기모노 솔더<sup>8)</sup>', '기모노 드레스<sup>9)</sup>' 등과 같은 용법이 있다. 이는 서양의 디자이너들이 와후쿠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서양의 의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때 기모노란 의복의 부분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여미고 끈으로 묶는 유도복 형식의 의복을 가리키는 경우<sup>10)</sup>도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기모노는 특히 앞에서 여미고 끈으로 묶어 입는 직선 재단의 원피스형 의복을 중

심으로 하였으나, 편이상 서양에서 말하는 기모노의 개념을 포괄하였다.

## 2 기모노의 조형적 특성

기모노는 일본 특유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신념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독특한 형태를 형성하여 왔다. 조형적 특성상 크게 형태, 색채, 문양으로 구분하였으며 형태는 소매(袖, 소데), 끈(帶,紐, 오비), 치맛자락(袴, 스소), 깃(襟, 領, 에리)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형태

#### (1) 소매(袖, 소데)

소매는 기모노의 구조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다모토(袂)라 부르는 늘어진 소매자락은 커다란 특징이 된다. 그 중에서도 다모토가 불필요할 정도로 길어서 의복의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극대화시킨 것을 후리소데(振袖)라 하여 에도시대까지는 남녀모두 착용하였는데, 현재는 미혼 여성만이 입는다. 이에 비해 도메소데(留袖)는 후리소데에 비해 소매길이를 짧게 고정시킨(留める) 기모노란 의미로, 그 중에서도 검은색 옷감 위에 5개의 가문(家紋)을 넣은 것은 기혼 여성들이 가장 포말한 경우에 입는다. 이는 소매의 특징이 그대로 기모노의 명칭이 되는 경우이다.

기모노의 소매 길이는 양팔을 수평으로 펼 때 어깨부터 커프스까지의 길이를 재며, 폭은 소매의 위와 아래를 수직으로 재는데, 폭이 길이보다 더 길다<sup>11)</sup>. 따라서 기모노에 있어 소매는 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형태의 변화가 심하여 자연히 발생하는 아름다운 주름은 유동적인 리듬감을 준다.

한편 일본 전통의 기모노 소매와 서양에서 말하는 기모노 소매를 비교해 보면 원래 기모노의 소매는 몸판과 이어 박은 것임에 반해, 서양에서 말하는 기모노 소매는 봉제선이 없는 직선형의 여유있는 형태<sup>12)</sup>라는 차이가 있다. 즉 서양 복식의 소매에 비해 기모노의 단순한 형태와 밑으로 처진 어깨선이 이국적인 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 (2) 오비(帶,紐)

기모노는 양복과 같은 단추나 벨트는 사용하지 않고 오비와 끈으로 묶어 입는다. 오비는 기모노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허리보다 위쪽에 묶으면 하체가 길게 보이고 전체의 프로포션이 아름답게 된다. 또한 기모노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체적 인상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모노의 색이 어두운 경우는 오비의 색을 밝은 것으로 하고, 반대로 기모노가 밝은 색일 경우에는 오비를 어두운 색으로 하는 방법에 의해 기모노와 오비 모두가 서로 돋보이게 할 수 있다<sup>13)</sup>.

이와 같이 오비는 기모노의 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극히 중요한 존재이나 처음은 단지 의복을 신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단순한 실용품에 지나지 않았다. 즉 15세기 중반까지 오비는 단지 가운을 묶기 위한 좁은 끈 형태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 넓어져 긴 태슬 장식과 함께 허리부근을 세 네 번 두르게 되었으며, 17세기 중반부터는 기모노가 점차 길어지면서 여성용 오비도 넓어지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 오비는 앞이나 뒤, 옆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묶었는데, 점차 미혼 여성들은 뒤에서 기혼 여성들은 앞에서 묶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혹은 젊은 여성의 경우, 그 끝을 어깨보다 위로 추켜 올려 매기도 했다. 그 후 최근의 길이는 4미터, 폭은 1미터에 달하며, 기혼과 미혼 여성 모두 뒤에서 묶는다<sup>14)</sup>.

기모노는 양복과 같이 신체치수를 일일이 측정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착장할 때 신체에 맞추어 형태를 만들면서 입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입는 방법에 따라 같은 옷이라 하더라도 입는 방법에 의해 고상하게 보이기도 품위가 없게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도회풍으로 보이기도 시골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 때 오비를 두르는 방법, 매는 방법은 '기츠케(着付け)'<sup>15)</sup>의 일부에 속하여 그 매듭의 방법여하에 따라 다양한 표정 변화가 가능하다.

### (3) 치맛자락(스소, 袴)

치맛자락 역시 또 하나의 기츠케 요소로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옆선과 치맛자락의 선은 기모노의 미를 구성한다. 치맛자락은 의복의 하단에 있는 만큼

사람의 눈에도 띄기 쉬우며, 자태와 동작에 의해 돋보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예부터 내려오는 '스소 사바키(紗さばき)'란 '치맛자락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서 보행시 살며시 펼쳐거리며 걸감과 조화된 색의 안감이 보일 듯 말 듯한 정경은 일본적인 우아함과 동적인미를 지니고 있다<sup>16)</sup>.

#### (4) 깃(에리, 襟, 領)

현재 기모노 깃의 종류에는 '히로에리(ひろえり)', '세마에리(せまえり)', '바치에리(ばちえり)'가 있다<sup>17)</sup>. 히로에리는 여성들의 기모노에 사용되는데, 깃을 넓게 만들어 반으로 접어 입는다. 이는 깃의 폭을 자유롭게 체형에 맞추어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세마에리란 히로에리 폭의 약 반으로 주로 남성복과 아동복에 사용된다. 바치에리는 하단이 일본의 악기 '샤미센(三味線)'의 줄을 튕기는 도구인 '바치'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여성들의 기모노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히로에리는 외출복 등에 흔히 사용되며 바치에리는 평상복에 도입된다.

기모노의 깃은 기츠케에 따라 자유롭게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형태 여하에 따라 표정이 변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힌트를 얻은 칼라를 기모노 칼라라 한다<sup>18)</sup>.

## 2) 문양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부와 취향이 값비싼 보석류를 통해 증명되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같은 금전이 정선된 소재로 만들고 뛰어난 공예가에 의해 디자인된 화려한 의장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소재에 관한 높은 평가는 기꺼이 많은 금액을 기모노와 오비, 끈 등의 장신구에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sup>19)</sup>.

일본의 소재는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으로부터 중국 모델로부터 가져온 회화풍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회화풍의 경우 빛나무, 오얏나무, 아몬드 꽃나무 등의 꽃들을 조합한 전통적인 패턴들은 4계절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일본 특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sup>20)</sup>. 그리고 인체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비대칭 무늬가 특징이다.

또한 기모노는 염색과 직조에 따른 차이에 따라 그 명칭이 다르다. 선염에 의한 것으로는 견직물의 일종인 오메시(御冑)<sup>21)</sup>와 츠무기(紬)<sup>22)</sup> 그리고 여름용으로 샤(紗) 등이 있고, 후염에는 유우젠(友禪)<sup>23)</sup>, 고몬(小紋), 시보리(絞) 그리고 여름용으로 로(ろ) 등이 있다. 의례용과 사교상의 정장으로 착용하는 기모노는 후염이 많으며, 평상복으로는 선염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에바(繪羽) 무늬란 옷감을 가봉하여 연속된 무늬를 넣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가스리(气)와 줄(縞, 시마)무늬는 직물의 경위사의 단순한 조합으로부터 형성된 직물의 무늬를 가리킨다. 우선 실을 미리 무늬에 따라 곳곳을 묶어 방염(防染)하고 염색 후 부분적으로 남은 실을 사용하여 짜면 가스리 무늬가 나타나는데, 무늬와 색이 단순하고 경 위사가 겹쳐지는 데에 특수한 멋이 있다<sup>24)</sup>. 이에 비해 줄무늬는 직선 혹은 곡선을 평행 또는 교차시켜서 무늬를 만드는 것의 총칭으로, 본격적으로는 에도시대 이후 중국계와 남방계 등의 줄무늬가 수입되면서부터 유행되었다. 에도시대에는 경제정책으로서 산업의 장려가 크게 행해졌는데, 그 결과 가장 소박한 줄무늬 직물이 가스리 직물과 함께 지방적인 줄무늬 직물이 생산되어 독특한 일본의 소재를 생성하였다.

## 3) 색채

일본의 색채문화는 시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하나는 '가사네이로메(藪色目)'라 하여 겹쳐 입는 의복들의 색 배합과 배열, 하물며 그 명칭에까지도 특별한 감정을 불어넣었다<sup>25)</sup>. 헤이안시대의 대표적 복식인 주니히토에(十二單)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색채 미학은 4계절의 꽃과 나무 등과 같은 풍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일본의 복식사상 가장 아름답고 호화로운 복식 미학을 형성하였다.

한편 에도시대 초기에는 무가 계급을 중심으로 다채롭고 화려한 복식이 발전하였는데, 흔히 '다테(だて)'<sup>26)</sup>라 하여 복식의 색채와 문양 등에서 기발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에도시대 후기에는 초(町人)들의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거리와 유곽(遊廓)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키(粋)'<sup>27)</sup> 취향이 나타나 에로틱한 분위기가 있으나 결코 야취미가 아

니며 서민적이며 성인다운 미적감각이 발달하였다. 그에 따라 색채 역시 여러 색을 화려하게 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색만으로도 그 농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색조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에도 후기에 나타난 '이키' 취향의 색채는 '가사네이로메'로 대표되는 헤이안시대 이후의 색채문화와 전혀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회색(灰色), 차색(茶色), 남색(藍色)이라는 극히 수수한 색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약간의 화려한 색을 가미함으로써 색다른 맛을 내곤 하였는데, 이는 수수한 색과 화려한 색을 아주 조금씩 대비시키는 방법에 의해 화려함이 내재된 은근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다.

### III.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

서양복식사 내에서 기모노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며 변천해 왔다. 그에 관한 일본저서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ジャポニスム・イソ・ファッション』<sup>28)</sup>에서는 그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19세기 후반 이국취미로서의 수용, 모티프와 기술적 모방, 기모노 조형성의 수용, 일본 미학의 개념에 대한 흥미와 같은 4단계로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출판된 『The Kimono Inspiration』<sup>29)</sup>에서는 19세기말 이국취미의 일환으로 나타난 기모노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초반 여성해방 운동과 결부되고, 197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민속예술에 대한 관심을 담은 아방가르드 경향의 아트 투 웨어(Art to Wear) 운동으로 전개되어 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크게 이국취미와 포클로어, 아방가르드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 1. 이국취미<sup>30)</sup>와 기모노

서양세계에 기모노가 처음으로 선을 보인 것은 17-8세기로, 동인도 회사를 통해 네덜란드에 건너온 기모노가 서양 남성의 실내복으로 착용되었다. 그것은 '야

폰셰 로켄(Japonsche Rocken)' 혹은 '반얀스(banyans, 인도의 상인)'라 불리어 서양 세계에서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 세련된 취향을 상징하면서 부유층 남성들의 실내복으로 착용되었다<sup>31)</sup>.

그 후 19세기 중반부터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다양한 일본의 물품을 서양인들에게 널리 알렸다. 당시는 증기선과 철도 등의 발달에 의해 사람과 물건, 그리고 각종 정보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빨리 대량으로 이동 전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외교관, 성직자, 무역상, 여행가, 학자, 예술가 등의 인적 교류가 다양한 형태로 일본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sup>32)</sup>. 그 속에서 기모노는 여유있고 개방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적 제약이 적은 실내복으로서 수용되어 갔다. 대표적인 것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직조와 염직, 예를 들면 매화, 벚꽃, 국화, 목단 등 사계절의 화초와 수류문(水流紋) 등을 전체적으로 장식한 에도시대 후기의 무가계급의 고소대이었다<sup>33)</sup>.

당시 서양인들의 기모노에 대한 관심은 부분적으로는 멀고 신비한 땅인 이국에 대한 동경에 기인한다. 이국적인 동양은 현실의 부분임과 동시에 향수적인 환상의 일부분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식민주의는 이국취미 내에서 향수적인 로맨티시즘과 결부되면서 기모노의 대중적 인기에도 공헌하였다<sup>34)</sup>.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을 주로 본능적인, 불합리적인, 직관적인, 어린애같은, 게으른, 교활한, 여성적이라 평가했는데, 이 중 관능적이고 여성적인 면은 일본과 기모노에 대한 서양의 정신과 결부되었다<sup>35)</sup>.

특히 게이샤(藝者)와 공중 목욕탕에서 남녀가 혼욕하는 풍습 등 아주 다른 성적관습과 일본 여성들의 유순하고 순종적인 행동은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이러한 선입관은 기모노의 이미지에 부가되었다. 따라서 기모노가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착용하는 복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양에서는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물이 됨에 따라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반 고흐(Van Gogh), 모네(Monet), 르노와르(Renoir), 휘슬러(Whistler)와 같은 당시 화가들의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기모노를 입은 서양 여성들로 에로티시즘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모네는

그의 'La Japonaise'에서 빨간색의 긴 기모노를 입은 자신의 부인을 그렸는데, 일본그림에 나오는 창부(娼婦)와 같은 포즈이다.(그림 1) 또한 휘슬러는 철저하게 외부세계와 차단된 사적공간에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을 그림으로써 수동적이고 루즈하며 은밀한 느낌을 기모노에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한 것은 19세기말의 중요한 오락의 하나인 오페라와 연극이었다. 특히 1900년 남편이 이끄는 악극단과 함께 파리에서 공연을 하여 눈길을 모은 게이샤 출신의 여배우 가와카미 사다야코(Kawakami Sada Yacco)와 1904년 밀라노에서 개막된 푸치니(Puccini)의 '나비부인(Madame Butterfly)'이 계기가 되었다<sup>36)</sup>.(그림 2) 특히 사랑을 위해 죽는 이국적이고 허약하며 헌신적인 나비 부인은 서양에 환상적인 이미지를 주었고,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은 순종적인 자기희생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소유한다는 전설을 낳았다.

한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코르셋과 버슬 등의 속옷에 의해 여성 본래의 신체를 왜곡하는 부자연스런 의복을 벗어버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모노로부터 영감을 얻은 의복은 여성의 역할, 평등과 선거권을 위한 여성들의 투쟁,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에 관한 변화된 사고를 표현하였다<sup>37)</sup>. 당시 일어난 여성

복 개량운동은 건강하고 기능적인 의복을 주장하였으며, 후프 스커트와 버슬과 같은 장애물과 타이트한 코르셋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나타냈다.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기모노는 서양에서 성적이며 비도덕적인 이미지를 갖는 동시에 실용적인 편안함을 시사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 2 포클로어 패션과 기모노

1970년대에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력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서양인들의 대중적 의식 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전자와 자동화 생산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17세기 초 일본에 좌초하여 사무라이 계급에 틀어박힌 영국선원의 이야기를 그린 75년 출판된 제임스 클라벨(James Clavell)의 소설 '쇼군(將軍)'이 인기있는 TV 시리즈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시각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미국의 곳곳에서 'Japan Bashing'이 일어나기도 했다<sup>38)</sup>.

한편 당시 일어난 수공예 운동은 민속예술(folk art)과 프리미티브(primitivist) 스타일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인디고 염색을 한 일본의 민속 소재(folk textile)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이는 민속 예술가인 야나기 소에츠(Yanagi Soetsu)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그의 민속



<그림 1> C. Monet, La Japonaise(1876)  
(출처: Kimono Inspiration, p. 22)



<그림 2> Kimono Sada Yacco의 광고(1905)  
(출처: 모드의ジャポニスム, p. 91)



<그림 3> Takada Kenzo(86)  
(출처: Universe of fashion-Kenzo, p. 40)



<그림 4> Kawakubo Rei (83-4 A/W)  
(출처: Women of Fashion, p. 183)

예술 혹은 공예는 전통적인 수공예 작품을 전시하는 민예(民藝)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의 뛰어난 공예가들을 무형문화재(Living National Treasures)로 지정하는 정부의 방침을 낳게 하였다<sup>39)</sup>. 이상이 일본의 일반인과 농민, 소방수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기모노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카다 겐조와 미야케 이세이(Miyake Issey)와 같은 일본인 디자이너들의 등장으로 현저해졌다. 우선 다카다 겐조는 1970년 파리에 데뷔하면서부터 일상적이고 비구축적인 의복이라는 주변성을 디자인의 특징으로 하였다. 즉 그 때까지의 에로틱하고 우아한 기모노가 아니라 보편성을 갖는 노동복, 일본의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이미지 원천으로 하고 있었다<sup>40)</sup>. 예를 들면 오버 사이즈의 재킷, 풍부한 컬러와 무늬, 다양한 일본의 민속풍 소재 등을 들 수 있다.(그림 3)

한편 이세이 미야케는 '한 장의 천'이라는 평면의 발상을 컨셉으로 한 의복을 발표했다. 한 장의 천을 신체에 걸친다, 남은 것은 무리하게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늘어뜨린다, 그에 따라 생기는 '공간(間, 아이다)' 이야말로 서구의 의복과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며, 서양의 의복구성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이 '공간' 감각은 여유공간과 릴랙스(relax)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sup>41)</sup>. 또한 그는 일본 전통적인 소재라 해도 고급의 견을 사용한 기모노와 오비의 옷감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대대로 이어내려 오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소재를 현대의 기술과 생산체제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포클로어라는 당시의 패션 경향 하에 기모노의 옷감과 모티프가 출현하였으며 기모노의 여림과 직선적인 재단을 도입하고, '겹쳐입기'라는 착장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우아하고 에로틱한 이전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시부이 감각(shibui feeling)'<sup>42)</sup>을 표현하는 검정색, 회색, 브라운과 같이 억제된 색상들이 사용되었다. 다도(tea ceremony)와 젠부디즘(Zen Buddhism)의 영향, 의복의 비형식적인 커트(informal cut), 신체를 밀착시키지 않고 감듯이 두르는(wrap around) 방법, 거친 울(rough wool), 생사(raw

silk), 어망, 종이와 같이 색다른 소재의 사용 등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 3. 아방가르드 패션과 기모노

1980년대 초에 데뷔한 일본인 디자이너 가와쿠보 레이(Kawakubo Rei)와 야마모토 요지(Yamamoto Yohji)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물에 보이는 재료와 구조, 무장식성이라는 또 다른 일본의 미의 개념을 패션으로 재현하였다<sup>43)</sup>.

우선 야마모토 요지는 느슨하게 피트되는 코트와 스커트로 억제된 엘레강스(subdued elegance)를 표현하였는데, 슬리브는 기모노와 같이 손을 덮는 길이로 하였다. 또한 기모노를 표현하기 위해 의복에 가시적 에너지를 주는 헤비 듀티(heavy-duty) 직물과 줄무늬, 마름모꼴, 사각무늬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가와쿠보 레이는 금욕적(austere)인 디자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모노의 미를 무형태의(shapeless), 무정형의(formless), 무색상의(colourless), 성별구분이 없는(sexless)의 본질로까지 이끌어내었다<sup>44)</sup>.(그림 4) 또한 후리소데와 같이 길고 넓은 슬리브, 서로 묶을 수도 있는 4개의 소매들, 불규칙한 헴라인과 비대칭적인 패턴 등으로 일본의 기모노 양식을 표현하였다. 특히 누더기와 같은, 구멍이 뚫린, 장식을 제거한 불안전하고 궁핍함과 빈약함을 강조한 미적 개념은 전위적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에는 일본 전통의상으로서의 기모노가 갖고 있던 기능이 전면화되어 지금은 공예품처럼 되어 버린 감이 있는 원래의 기모노보다도 오히려 전위파 디자이너들의 작업 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예를 들면 보관과 운반시의 편의를 위해 접었을 때 평면이 되도록 한 재단법, 프리 사이즈, 비대칭적 형태, 입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 의복의 샤프한 선이 연출하는 에로티시즘, 보자기의 발상법, 그리고 입어서 처음으로 완결되는 미완성적인 의복 등 신체포장이라는 원리로부터 본다면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원리가 역으로 의복에 한없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가리켜 일본의 후카이 아키키코(Hukai Akiko)는 '네오 자포니즘(Neo-Japonism)'이라 명명했다<sup>45)</sup>.

## IV.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

### 1. 복식사적 배경

세계적으로 1990년대는 지난 80년대에 대한 반동의 시대였다. 노숙자의 증가나 부의 편중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한탕주의를 조장하였고<sup>46)</sup> 불경기, 고용불안, 전쟁, 민족주의, 그리고 정치, 문화, 기술의 세계화는 동시대적 견해를 나타내며 마치 필수 요소인 것처럼 되었다.

그 한편으로는 컴퓨터와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위성방송, 문자방송, 케이블 TV 등 각종 뉴미디어와 함께 문자, 영상, 음성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미디어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졌으며, 세계 각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국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세계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활동의 영역이 되었고, 우리의 사고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현실과 융합시켜 기술적으로 생산된 다수의 이미지들에 의해 정의되었다<sup>47)</sup>.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최첨단 소재와 형태로 미래를 찬미하는 패션이 대두되었다. 이에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패션산업의 글로벌화를 반영하고 미래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sup>48)</sup>. 그러나 그 반면에 반도시적이고 반테크놀로지, 반물질의 세계에 대한 노스탈지아(nostalgia) 경향 또한 나타났다. 주로 환경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패션은 자연에의 동경을 반영한 에콜로지, 동서양이 동시대적으로 크로스화하면서 나타난 에스닉, 과거에 대한 회고를 담은 레트로가 패션 테마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패션은 예전보다 더욱 다양한 스타일들을 제공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왔다. 패션잡지들은 더 이상 각 시즌의 특정 테마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대신 양면가치(ambivalence)에서 비롯된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갔다. 그 속에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으로 오리엔탈리즘이 대두되었으며, 비서양 세계의 에스닉 의상

이 최신 유행 스타일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리스 반 노텐(Dries Van Noten), 장 폴 고티에, 그리고 비비안 탐(Vivienne Tam)과 같은 디자이너로, 그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양립된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합병시킨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 외에도 베르사체(Versace)는 사리(sari)를, 로메오 질리(Romeo Gigli)는 러시아 발레를 이미지로 하여 동양의 환타지를 묘사하였으며, 오즈벡(Rifat Ozbek)은 터키 의상에 대한 로맨틱한 해석을 보여주었다<sup>49)</sup>. 그런가 하면 일본 태생의 미야케 이세이, 이란 태생의 디자이너 시린 길드(Shirin Guild), 인도 태생의 디자이너 아샤 사랍하이(Asha Sarabhai)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은 문화를 초월한 모던하고 기능적 의상의 결과인 미니멀적인 미학 내에서 그들 자신의 문화적 의복 전통을 재작업하는 방법을 통해 단순한 문화적 혼성과 노스탈지아적 경향을 거부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다<sup>50)</sup>. 이상과 같은 디자이너들의 문화적 유희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패션이라는 개념 하에 에스닉 감각의 상업적 스타일을 양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한 복식사가는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글로벌 빌리지 패션(global village fashion)<sup>51)</sup>이라 말했다.

### 2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의 분석

1990년대에 들어 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서양인들의 이국적 영감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면서 패션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중시되었다. 기모노와 관련해 볼 때 발렌티노(Valenti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존 갈리아노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비서구식 커팅과 장식을 특징으로 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미 이국취미나 일본취미의 단계를 넘어 보편성과 첨단성을 겸비한 컨셉과 상품감각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골든(S. Golden)의 저서인 '게이샤의 회상록(Memoirs of a Geisha)(1997)' 등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sup>52)</sup> 심지어 마돈나조차도 몇몇 TV 프로그램과 잡지 촬영에서 게이샤 스타일의 옷을 입기도 했다<sup>53)</sup>.

III장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1990년대 컬렉션에 발표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들을 스타일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미의식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페미닌 스타일(feminine style)

페미닌 스타일이란 서양세계에 기모노가 처음으로 선보인 이래 강하게 인식되어 온 기모노의 관능적이며 에로틱한 분위기를 나타낸 스타일을 가리킨다.

이 스타일은 주로 서양 의복에 비해 여유있고 개방적인 실내용 가운데로서의 이미지를 원천으로 하며 '걸쳐 입는다(하오루, 羽織る)', '앞으로 감싸다'는 기모노의 특성을 나타낸다.(그림5, 6) 흔히 말하는 기모노의 미 중에서 우아와 요염의 미가 해당되는 스타일로, 우아미란 말싸나 행동에 품위가 있으며 침착한 모양으로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자태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요염미란 빛나고 아름다우며 화려한 미로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깃을 약간 뒤로하면서 앞으로 여며 입었을 때의 에로틱한 분위기를 나타낸다.(그림7, 8)

또한 이 스타일은 무엇보다 광택과 프린지(fringe) 등의 장식이 있으며 화려한 색상과 무늬 등을 사용하였다.(그림 9) 이것은 '하데(派手)'와 '지미(地味)'라 하여 일본 복식의 미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축 중에서

'하데'의 미의식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하데'란 색채, 복장 따위가 화려한 일, 행동 등이 눈부셔서 사람의 눈을 끄는 일을 의미한다. 그 반면 '지미'란 그 반대 말로 색상이나 무늬, 착장 상태 등이 검소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표현한다. 즉 일상복으로서의 기모노보다는 화려한 이브닝 웨어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  
(natural & folklore style)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은 앞서 말한 '하데'와 '지미'의 미의식 중에서 '지미'에 속하는 스타일로 느슨하고 과장이 없는 실루엣과 자연스런 색상이 특징이다.

이는 과거 기모노가 여성 해방과 의복개량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부자연적인 신체를 왜곡하는 서양의 의복과는 달리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복이라는 이미지와 결부된 것으로부터 비롯되며 '가내 봉제가 가능한', '단순한', '두르듯 감싸는' 등을 특성으로 한다.(그림 10, 11) 또한 1970년대에 일본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새롭게 제안된 기모노의 이미지를 원천으로 하기도 하는



<그림 5> Lolita Lempicka  
(출처: Fashion Show, 95 S/S)



<그림 6> Jacques Fath  
(출처: Fashion Show, 96-7 A/W)



<그림 7> Lainey Keogh  
(출처: Fashion Show, 98-9 A/W)



<그림 8> Takada Kenzo  
(출처: Fashion Show, 95-6 A/W)



<그림 9> Martine Sitbon  
(출처: Fashion Show, 95 S/S)



<그림10> Les Copains  
(출처: Fashion Show, 93 S/S)



<그림11> Valentino Boutique  
(출처: Fashion Show, 97-8 A/W)



<그림12> Takada Kenzo  
(출처: Soen Eye No. 13, p.32)



<그림13> Sportmax  
(출처: Fashion Show, 97 S/S)

데, 무엇보다 '시부이 감각'의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검정색, 브라운, 감(藍)색과 같이 채도가 억제된 색상에 일본의 민속 문양을 '겹쳐 입기' 방식으로 여러 색상과 패턴들을 멀티 코디네

이트시킨 것이 많이 나타난다.(그림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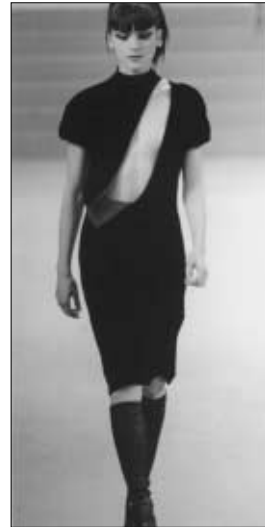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두르듯 감싸는' 여밈 방식이나 '겹쳐 입기' 방식은 유독 기모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비서구적인 개념을 갖는 복식의 일반적 특성이라



<그림14> Christian Lacroix (출처: Fashion Show, 97-8 A/W)



<그림15> Balenciaga (출처: Hi Fashion No. 265, 99 S/S)



<그림16> Ghost (출처: Fashion Show, 98-9 A/W)

할 수 있다. 이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기후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된 착장 방식으로, 특히 기모노와 관련해 보면 소매와 폭이 넓으며 구성이 간단하여 형태상에서는 너무나 일본의 여름 날씨에 적합하게 되어있다. 즉 기모노의 넓은 소매와 감싸는 여밈 방식은 높은 습도와 기온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풍을 중시한 구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은 그것을 몇 겹이나 겹쳐입는 방법에 의해 추위를 막았다. 즉,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은 서양 복식과는 다른 접근 방법 즉, 서양이 재단과 실루엣을 중시하는데 비해 두르고, 겹쳐입는 방법을 디자인 특성으로 삼은 데서 비롯된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 3) 모던 및 아방가르드 스타일(modern & avant-garde style)

모던 및 아방가르드 스타일은 1980년대에 화제를 모았던 일본 전통의 구조와 재료를 중시하고 엄격한 무장식의 미를 가진 기모노 이미지를 디자인 원천으로 하는 스타일로, '불규칙한', '비대칭의', '형태가 없는', '무정형의', '무채색의', '성별이 없는'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슈트, 원피스, 팬츠 등과 같은 아이템의 슬리브, 벨트, 넥라인 등에 기모노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 눈에 띄는데, 직선과 사선의 느낌을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다.(그림15-17) 무지에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며 적색이 액센트 컬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는 방정(方正)의 미<sup>94)</sup>라 하여 직선, 직각, 등방(等方), 원 등을 기초로 하는 형태로 직선과 직각에 대한 미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사각형에 원을 넣은 국기가 그 전형으로, 그 외에도 일상의 용구로서 식기, 옷장, 다다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었을 때에 신체와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 이아말로 착장 중시의 의복 기모노를 상징한다. 그 예로 <그림 16>은 기모노의 깃과 같은 사선의 절개선을 넣은 후 자연스럽게 접히는 선에서 나타나는 공간이 입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속으로 보이는 적색의 액센트 컬러가 안감과 겉감을 달리하는 기모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양 의복이 장식적인 변화를 보이기 위해 개더와 턱 등의 특별한 수법을 사용하는데 반해 솔기선과 어깨로부터 소매를 걸쳐 접힌 선, 그리고 소매 등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주름의 미가 디자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 이는 유동성과 변화의 미를 나타내는 것



<그림17> Jean Paul Gaultier  
(출처: Fashion Show, 93-4 A/W)



<그림18> Jean Paul Gaultier (출처: Hi Fashion No. 265, 99 S/S)



<그림19> Gaspard Yurkievich (출처: Hi Fashion No. 265, 99 S/S)

<표 1>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

	페미닌 스타일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	모던 및 아방가르드 스타일
이미지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용 가운데로서의 기모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복으로서의 기모노</li> <li>•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의 기모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와 재료를 중시한 기모노</li> <li>• 엄격한 무장식을 특징으로 한 기모노</li> </ul>
디자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택이 나는</li> <li>• 장식적인</li> <li>• 화려한 색상과 무늬가 있는</li> <li>• 걸쳐입는다,</li> <li>• 앞으로 감싸입는다는 감각</li> <li>• 젖혀진 깃을 통한 목선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슨하고 과장이 없는 실루엣과 자연스런 색상</li> <li>• 일본 민속문양의 멀티 패턴 코오디네이트</li> <li>• 두르듯 감싸는 여밈방식</li> <li>• 겹쳐입기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규칙한, 비대칭의, 형태가 없는, 무채색의, 성별이 없는</li> <li>• 기모노 이미지의 슬리브, 벨트, 네크라인</li> <li>• 직선과 사선, 주름의 강조</li> </ul>
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아와 요염의 미</li> <li>• 하데의 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미의 미</li> <li>• 시부이 감각의 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정의 미</li> <li>• 변화와 유동의 미</li> </ul>

으로 주름이 신체의 동작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낳아 리듬감을 생성함과 동시에 명암 감각을 주어 입체적 구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18, 19)

## V. 결론

본 연구는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비서구적 개념의 복식을 디자인하기 위한 표현방법을 분석 제시하고자 우선 기모노가 갖는 전통적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서양복식사에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들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말하는 기모노는 와후쿠 중에서도 앞에서 여미고 오비로 묶어 입는 원피스형 의복을 가리키나, 흔히 서양에서 말하는 기

모노란 19세기말 일본취미가 유행되면서 당시의 복식에 유입,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첫째 앞으로 여미고 여유있는 실내용 가운(peignoir)이 가장 일반적이며, 둘째 기모노 칼라, 기모노 솔더 등과 같이 서양의 디자이너들이 와후쿠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서양 의복의 부분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 외에도 앞에서 여미고 끈으로 묶는 유도복 형식의 의복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기모노는 일본 특유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신념 등을 배경으로 하여 독특한 형태를 형성하여 왔는데, 그 조형적 특성으로는 크게 소매(袖, 소데), 끈(帶, 紐, 오비), 치맛자락(袴, 스소), 깃(襟, 領, 에리)과 같은 구조와 소재 등으로 구성된다.

기모노가 서양에 알려진 것은 17-8세기 동인도 회사를 통해 서양 남성의 실내복으로 착용된 것을 시점으로 하나, 본격적으로는 19세기 이국취미를 배경으로 하여 수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서양세계에서 형성된 오리엔탈리즘과 에로티시즘, 여성해방운동과 의복개혁운동과 결부되면서 순종적인 여성과 관능적인, 에로틱한 이미지를 갖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와 정숙하고 고결한 이미지를 갖는 등 모순된 부가적 의미를 상징하였다. 그 후 1970년대가 되자 다카다 겐조와 미야케 이세이 등의 일본인 디자이너들은 그 이전과는 다른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시부이 감각을 특징으로 한 포클로어 이미지의 기모노 패션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요지 야마모토와 레이 가와쿠보가 등장하여 금욕적이고 억제된, 무정형의, 성별이 없는, 무채색의 아방가르드 이미지의 기모노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1990년대에는 양면가치에서 비롯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적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기존의 이국취미나 일본취미 등의 단계를 넘어 동시대적 감각의 기모노 이미지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그 스타일을 분석해 보면 크게 페미닌 스타일과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 모던과 아방가르드 스타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페미닌 스타일은 실내용 가운으로서의 기모노를 이미지 원천으로 하는 스타일로 광택이 나는, 장식적인 등의 디자인 특성을 지니며, 우아와 요염의 미 그리고 하데의 미를 미적 특성으로 한다. 내추럴 및

포클로어 스타일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의복으로서의 기모노와 서민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의 기모노를 이미지 원천으로 하는 스타일이다. 또한 느슨하고 과장이 없는 실루엣과 자연스런 색상 등을 디자인 특성으로 하며 지미의 미와 시부이 감각의 미를 미적 특성으로 한다. 모던 및 아방가르드 스타일은 구조와 재료를 중시한 기모노와 엄격한 무장식을 특징으로 한 기모노를 이미지 원천으로 한다. 그리고 불규칙한, 비대칭의, 형태가 없는 등의 디자인 특성을 지니며, 방정의 미와 변화와 유동의 미를 미적 특성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과거 서양 사회에서 나타난 기모노의 이미지들을 원천으로 하는 것으로 과거 형성된 이미지들이 그대로 남아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알맞은 비서구적 개념의 복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디자인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경, 성별을 초월한, 미래적인 의복을 제안하는 안목이 필요시 된다. 전통 복식의 국제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 이상의 연구를 통해 그 표현방법을 모색하고 기타 다른 전통복식의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1) 박은주, 은영자,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복식 43, 1999. 3. 31.  
이경희, 자포니즘 모드의 시원과 전개, 패션비즈니스 4-1, 2000. 2.  
임영자, 김선영, 현대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50, 2000. 7.  
조정미, 김예형, 현대패션에 나타난 젠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56, 2000. 9. 외
- 2)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東京: 同文書林, 1991, p. 235.
- 3) 일본근세의 사회계층의 하나. 도시에 거주하는 상인,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소시민

- 의 경제 생활을 주제로 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다.
- 4) 文化學園ファッション情報センタ-編集, きもの, 装苑アイ No. 13, 1993. 5. pp. 14-5.
  - 5) The Textile Museum, The Kimono Inspiration, Pomegranate Artbooks, 1996, p. 15.
  - 6) 田中千代, 1991, p. 237
  - 7) 와후쿠의 깃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을 말한다.
  - 8) 와후쿠의 직선적인 어깨 스타일을 말한다.
  - 9) 몸판과 소매가 한 판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 평상복과 같이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 10) モードのジャポニズム, 京都服飾文化研究財團, 1996, p. 19.
  - 11) 遠藤教三, 服装とその美學-傳統から創造へ, 東京: 造形社, 1970, p. 44.
  - 12) L'ART DANS LE COSTUME, avril 1907,(モード의 샤보이니즘, 1996, p. 89에서 재인용)
  - 13) 遠藤教三, 1970, p. 47.
  - 14) Marion Sichel, Japan, London: BT Batsford Limited, 1987, p. 22.
  - 15) 기츠케(着付け)란 '입어서 옷이 몸에 익음(usual wearing)', '옷맵시(dressing)' 등의 의미로, 양복이 의복구성을 중시하는 의복이라면 기모노는 착장(着装)을 중시한 의복임을 나타낸다.
  - 16) 遠藤教三, 1970, pp. 55-6.
  - 17) 앞글, p. 38.
  - 18) 田中千代, 1991, p. 237.
  - 19) Hugo Munsterberg, The Japanese Kimono,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3.
  - 20) Marion Sichel, 1987, p. 4.
  - 21) 비단의 일종으로 오메시치리멘(おめしちりめん)의 준말이며, 하부타에(羽二重,はぶたえ)의 다른 말이다.
  - 22) 명주를 가리킨다.
  - 23) 견직물 등에 花鳥, 風月 등의 무늬를 선명하게 염색한 것이다.
  - 24) 遠藤教三, 1970, p. 97.
  - 25)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7, pp. 142-3.
  - 26) 다테란 '의기나 사나이다움을 과시하는 일', '화려한 거동을 함', '외견을 꾸밈', '겉멋을 부림' 등의 의미를 갖는 명사로, 남자답게 의협심을 살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오토코다테(男伊達)'의 다테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신적인 면보다는 외모를 강조하고 과시하며, 이에서 미적 효과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염혜정 외, 일본을 강하게 만든 문화코드16, 나무와 숲, 2000, pp. 40-1.)
  - 27) 이키란 옷차림, 복장, 사람의 분위기 등을 표현하는 말로 촌스러움에 반대되는 세련된 도시적인 감각을 말한다.(谷田闌次, 徳井淑子, 服飾の美意識, 日本放送出版協會, 1988, pp. 112-120.)
  - 28) 深井晃子, ジャポニズム・イソ・ファッション, 東京: 平凡社, 1994, pp. 264-270.
  - 29) The Textile Museum, 1996.
  - 30) 19세기 서양세계에 있어 이국취미라 하면 중동 즉 아랍 세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이란 말로도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술과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널리 생활과 문화 의 영역까지도 포함하여 '동방취미' 라는 의미로 오늘에도 살아 있다. (モード의ジャポニズム, 京都 服飾文化研究財團, 1996, p. 9)
  - 31) The Textile Museum, 1996, p. 16.
  - 32) モードのジャポニズム, 1996, p. 11.
  - 33) 앞글, p. 40
  - 34) The Textile Museum, 1996, p. 23.
  - 35) 앞글, pp. 23-4.
  - 36) モードのジャポニズム, 1996, p. 19.

- 37) The Textile Museum, 1996, pp. 54-5.
- 38) 앞글, p. 64.
- 39) 앞글, p. 64.
- 40) 深井晃子, 1994, p. 248.
- 41) 앞글, p. 252.
- 42) 뽀글(astringent) 수수한(unostentatious) 것을 의미하는 감각이다.
- 43) 20th Century Fashion Best 10, ドレスタディ 38 號, 2000, p. 38.
- 44) Hugo Munsterberg, 1996, p. 68.
- 45) モードのジャポニスム, pp. 24-5.
- 46) Kate Mulvey & Melissa Richards, Decades of Beauty, Checkmark Books, 1998, p. 190.
- 47) Gertrud Lehnert, A History of Fashion, Könemann, 2000, p. 98.
- 48)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Prestel, 1999, p. 164.
- 49)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20th Century Fashion, Thames & Hudson, 1999, p. 254-5.
- 50) 앞글, p. 255.
- 51)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p. 164.
- 52) 앞글, p. 164.
- 53) 앞글, p. 164.
- 54) 遠藤教三, 1970, p. 36.